

# 古典資料室 運營의 活性化에 關한 研究

柳 浚 正\*

## < 목 차 >

- |                  |                 |
|------------------|-----------------|
| I. 序 論           | 2. 分類의 實現       |
| II. 古書와 古典資料의 概念 | 3. 分類法의 改善      |
| 1. 古書의 概念        | V. 古典資料의 管理와 利用 |
| 2. 古典資料의 概念      | 1. 效率의 管理       |
| III. 古典資料의 蒐集    | 2. 利用의 極大化      |
| 1. 蒐集政策의 樹立      | VI. 結 論         |
| 2. 蒐集基準          | 參考文獻            |
| 3. 蒐集方法          | 英文抄錄            |
| IV. 古典資料의 分類     |                 |
| 1. 分類政策          |                 |

## I. 序 論

古典資料는 우리 선조들의 精神的 產物을 物理的인 形態에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전자료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고 國學分野의 새로운 업적의 창출이나 외세에 의하여 조작된 역사의 복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귀중한 고전자료의 정당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圖書館에 死藏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적인 손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역사를 빛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잠재우거나 소멸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동안 도서관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적 산물이었던 고전자료의 평가를 재산가

\*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博士課程.

치로만 인식하고 보존에만 치우쳐 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學問發展과 文化創造에 소홀하였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전자료의 보존하는 방법도 과학적이지 못하여 훼손이 많이 간 무관심의 상태였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고전자료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를 가져와 고전자료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자료실을 도서관내에 두게 되었으나 아직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 이용자가 증가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圖書館의 古典資料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전자료의 概念을 밝히고 도서관 업무의 흐름에 따라 蒐集, 整理, 保存, 利用의 측면으로 나누어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살펴본다.

## II. 古書와 古典資料의 概念

### 1. 古書의 概念

古書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료실을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서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현재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이러한 개념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겪는 경우가 흔히 있다.

도서관계에서 말하는 古書란 新書에 대비되는 말로서 옛날에 손으로 쓰여진 筆寫本과 木板이나 活字로 인쇄된 刊本을 말한다. 논리적으로 古書란 東書와 洋書を 막론하고 필사 또는 간행된지 오래된 것을 다같이 지칭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는 東洋의 古書만 포함시키고 西洋의 古書는 제외하는 것이 통례이다.<sup>1)</sup>

1)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 창간호,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5, p.22.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고서의 개념을 살펴보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동양의 전통적인 고유의 학술과 사상이 주로 한자로 쓰여진 것을 의미하며,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東洋의 옛 저술을 毛筆, 木板, 鑄字, 木活字, 石板 등의 수단으로 楮紙, 桑紙, 麻紙, 竹紙 및 이들의 혼합지와 倭紙 등의 옛 종이에 쓰거나 적어서 卷子本, 帖裝, 旋風葉, 蝴蝶裝, 線裝 등 이른바 전형적인 東裝本으로 장정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개념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동양의 전통적인 고유의 학술과 사상을 다룬 옛 책을 고서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에 동양에서 편찬되어 간행된 天主教 관련문헌이나 외국인이 쓴 저작물에 대한 翻譯書 같은 西學 관련문헌들의 처리가 어려워진다. 둘째는 고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혼란을 준다. 셋째는 漢字로 쓰여진 것 만을 고서라고 취급하면 古語로 쓴 한글본과 한문을 해석한 諺解本,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와 기타 동양제국의 문자로 이루어진 것들은 처리가 어려워진다. 넷째는 반드시 毛筆로 쓰거나 옛 인쇄수단으로 적어서 전형적인 東裝으로 장정한 것만이 고서이고 洋裝으로 장정된 문헌은 간행년에 관계없이 고서가 아니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sup>2)</sup> 이들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하면 時代, 文字, 裝幀, 內容에 의한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時代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大韓帝國末期(1909년) 이전, 中國은 清末(1911년) 이전, 日本은 明治(1867년) 이전에 간행되었거나 筆寫된 문헌을, 文字를 基準으로 하면 한문을 비롯하여 한글, 일본어, 몽고어, 만주어 등 동양제국의 古語로 된 문헌을, 裝幀의 형태로는 卷子本, 帖裝, 旋風葉, 蝴蝶裝, 包背裝, 線裝 등 東裝本으로 된 문헌을 고서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위의 시대적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年度 이후에 저술되어 간행된 것과 再刊, 影印된 것

2) 金致雨. "古書의 傳統的 整理方法에 關한 問題와 對策," 「論文集」 14輯, 釜山女子大學, 1983.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 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 창간호, 民族文化推進會, 1975.  
 千憲鳳. 「古書分類目錄法(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중에서도 내용이 고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장정에 구애됨이 없이 모두 고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용이 고전의 범주에 속하면 筆寫나 刊行年代와 裝幀의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고서의 범위안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時代와 裝幀의 기준과는 상호 모순된 기준인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金致雨님은 고서의 범위를 文字를 기준으로 삼는 것<sup>3)</sup>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文字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時代的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漢文을 비롯한 東洋諸國의 古語와 現代語의 구분이 어렵고, 古書는 옛날에 간행된 문헌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고서의 범위는 時代, 文字, 裝幀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것만이 진정한 古書라 볼 수 있으며, 內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고서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다루고 있는 고서들은 내용의 기준을 포함한 개념으로 다루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다. 따라서 용어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古典資料의 概念

古典이란 두가지의 意義性을 지닌다. 그 하나는 「옛 法度」, 「옛 制度」를 뜻하며, 다른 하나는 「옛날의 貴重한 書籍」, 「古代에 행하여진 後世에 模範이 될만한 書籍」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전자의 뜻은 「古道」라는 내용이며, 후자의 뜻은 「古書」라는 내용이다. 이 양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韓退之가 「文者 貫道之器」라 하였듯이 글이 道를 꿰는 器具라 한다면 「書者 載道之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道와 書의 관계는 마치 정신과 육체의 관계와 같다. 정신을 담는 그릇이 육체요, 정신과 육체를 합한 것이 사람이라면, 道를 담는 그릇은 書籍이요, 道와 書를 합한 것은 「典」이라 하겠다.<sup>4)</sup> 즉 「典」이라는 것은 그 문헌

3) 金致雨. 前掲論文, pp.2-3.

4) 梁大淵. 「古典의 定義와 그 內容의 分類」, 「민족문화」, 창간호, 民族文化推進會, 1975. p.7.

이 담고 있는 내용과 형태를 포함한다. 「古典」은 단순히 新書에 대비되는 말로 옛날 문헌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헌의 형태 즉 장정이 東裝이든 洋裝이든 관계없이 귀중한 옛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古典資料는 古書의 개념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옛 내용을 담고 있으면 후세에 와서 再刊되거나 影印 複製된 것도 포함되어진다. 고전자료의 시대적 기준을 간행시기로 잡는 것과는 달리 고전자료의 시대적 기준은 저술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즉 대한제국말기(1909년) 이전에 先人들에 의해 저술된 것이면 언제 간행되었든간에 고전자료로 규정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서관에서 고전자료를 다루고 있는 자료실을 古書室, 漢籍室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古典資料室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古書室은 의미상 전통적인 古書에 한정되어 있어 影印本 뿐만아니라 古文書와 같은 비도서 자료들은 포함되지 않고, 漢籍室은 중국문헌 또는 한자로 된 문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헌이나 한글 등으로 이루어진 문헌들은 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 III. 古典資料의 蒐集

#### 1. 蒐集政策의 樹立

古典資料를 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자료가 관리소홀로 파괴되거나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보존되던 자료는 한낱 휴지조각으로 변하여 선인의 사상이나 사회변화의 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기 어려운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고전자료가 우리나라 고유의 學術과 思想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國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셋째는, 고전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들이 경험이나 직관보다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광범위한 자료에 근거를 둔 歸納 또는 綜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sup>5)</sup> 우리나라 사람은 자료에 대한 독점현상이 강하여 남에게는 잘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요즈음 학자들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단편적인 자료보다는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된 자료를 원한다.

넷째는 오늘날 학문의 추세가 외국의 이론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고자 하는 적실성의 학문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적실성 있는 학문은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고전자료가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현저하게 부족해서 이용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고전자료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寄贈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장자를 찾아가 기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篤志家가 기증하겠다고 하면 마지못해 기증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고전자료의 수가 증가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수집에서 적극적인 수집으로 자세를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전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수집한다는 수집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그것은 반드시 制度化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고전자료에 대한 수집정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서의 수가 담보상태를 면하지 못하였다.

## 2. 蒐集基準

고전자료의 수집은 망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5) 조동일.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 새문사, 1985, pp.63-64.

각 도서관마다 고전자료의 수집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 장서의 특징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특징은 고전자료의 蒐集領域의 설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국가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전국이 고전자료의 수집영역이 되겠지만 다른 각 지역도서관은 그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영역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釜山大學校 圖書館의 경우는 수집영역이 우선적으로는 부산, 경남지역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산대학교가 부산, 경남지역에서 중핵대학이라 할 만큼 가장 큰 대학이고 중심대학이므로 그만큼 고전자료의 장서도 質的, 量的인 면에서 거기에 상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의 古典資料 蒐集基準은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야 한다.

- 1) 부산,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고전자료는 무조건 수집하도록 한다.
- 2) 부산, 경남출신 인물들이 저술한 문헌들은 원칙적으로는 原本을 수집하여야 하지만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는 複寫本이라도 우선 수집한다.
- 3) 他 地方人物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부산, 경남지역에서 刊行된 자료는 모두 수집한다.
- 4) 부산, 경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고 있는 문헌들은 모두 수집한다.

이러한 기준하에 수서정책을 수립한다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고전자료의 장서는 부산, 경남에 관련되는 모두 고전자료가 한 곳에 집중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부산, 경남 출신들의 人物들이나 地方, 郷土史 등 韓國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대단히 훌륭한 장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蒐集方法

#### 가. 所藏調査

고전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려면 우선적으로 고전자료가 있는 소장처의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개인 소장 고전자료와 寺刹, 書院, 鄉校 등에 散在해 있는 자료의 所在把握을 비롯하여 書誌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文化財管理局에서 1984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각 市道別로 個人, 鄉校, 寺刹, 圖書館 등에 소장되어 있는 고전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지금까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第 6輯까지 발간하고 있다.<sup>6)</sup> 이들 목록은 서울, 釜山, 京畿, 慶南地域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전자료들이 모두 조사되었다. 나머지 지역도 연차적으로 조사되어 조만간에 완료되리라 본다. 도서관에서는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을 통하여 소장처를 확인하고, 이 목록이 완벽하게 조사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록되지 못한 고서의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 나. 原典의 蒐集

도서관에서의 자료수집은 궁극적으로 原典의 蒐集이어야 한다. 그러나 원전의 수집에는 많은 난점이 따른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예산에 고서 수집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고,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古書의 책값이 新書에 비하면 워낙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국 고서를 가지고 있는 소장가들로 하여금 도서관에 寄贈 또는 寄託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도서관에 고서를 기증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가 個人文庫의 설치이다.<sup>7)</sup> 개인소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을 생각한다면 그 보관의 공간적, 환경적인 문제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어 잘 관리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개인문고의 설치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데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古書의 個人文庫에 대하여는 성문화하여 문서로써 작성해 놓아야 한다. 古書個人文庫의 設置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基本方針을 예를 들어 작

6)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1輯 - 大邱直轄市, 慶尙北道 -,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6.  
 \_\_\_\_\_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2輯 - 忠清南道 -, 서울, 1988.  
 \_\_\_\_\_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3輯 - 江原道 -, 서울, 1989.  
 \_\_\_\_\_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4輯 - 全羅北道 -, 서울, 1990.  
 \_\_\_\_\_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5輯 - 安東市, 郡(上) -, 서울, 1991.  
 \_\_\_\_\_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5輯 - 安東市, 郡(下) -, 서울, 1991.  
 \_\_\_\_\_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 6輯 - 光州直轄市, 全羅南道 -, 서울, 1992.

7) 諸洪圭. 「古書의 蒐集과 個人文庫」, 「도서관」 28,8(1973.8.9), p.41-42.



성하면 다음과 같다.

<古書個人文庫 設置方針>

1) 目的 : 귀중한 문화재인 고서를 적극적으로 蒐集, 保存 및 利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古書個人文庫를 설치하여 소장자로 하여금 寄贈 또는 寄託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둔다.

2) 方針 : 가. 도서관에 寄贈한 고서는 도서관 소유로 한다.

나. 寄贈 또는 寄託한 독지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가급적 실비에 해당하는 謝禮金을 지급한다.

다. 동시에 感謝狀 또는 感謝牌를 수여한다.

라. 다량의 고서를 기증 또는 기탁한 경우에는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기증자의 號 또는 이름을 붙여 「○○ 文庫」로서 설정하고 이를 別置 보호한다.

마. 개인문고에 대한 목록을 발간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한다.

바. 기증자의 뜻을 길이 남기기 위해 기증자의 寫眞, 略歷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3) 效果 :

가. 購入에 의해 수집할 수 없는 個人所藏의 古書를 발굴하여 이용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나. 기증자로 하여금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문고를 설치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게 기증 받을 수 있다.

다. 개인이 소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따른 귀중한 자료의 손실을 예방하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도서관간의 교류도 이루어져야 한다. 古書의 이용이 거의 없는 도서관에서 얼마 안되는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자료가 書庫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므로 같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古書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많이 활용되는 대규모 大學圖書館에서

수집하여 統合管理 및 運營하는 것이 古書의 管理와 利用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sup>8)</sup> 많은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고전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여도 이용율이 저조한데 얼마되지 않는 고서를 소장하고 있는 소규모도서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관리나 이용적 측면에서 庶子취급을 당할 것이 명백하다. 귀중한 자료를 각각 분산 소장함으로써 死藏시키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소규모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는 관리나 이용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는 대규모의 대학도서관에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이것은 도서관들간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소규모 도서관의 古書를 대규모의 도서관에 寄贈하는 형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寄託에 의한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複本の 數에 따라 도서관간의 交換에 의한 수집방법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반고서보다 고문서를 그리 귀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古文書의 수집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古文書가 의외로 좋은 자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古書에서 알수 없는 부분들이 古文書를 통하여 규명되는 예가 흔하다. 이러한 귀중한 자료들이 어떤 경우에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모두 도서관에서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다. 影印本과 複寫本의 蒐集

개인소장이 아닌 寺刹이나, 書院, 鄕校, 기타 기념사업회나 연구소, 기념회관에서 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의 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고서에 대해서는 부득이 복사방법을 이용하여 Microfilm화 하거나 影印本 또는 電磁複寫를 해서 수집하여 열람하도록 하여

8) 예를 들어 부산, 경남지역 각급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古書의 數는 大學圖書館의 경우 부산교육대학 545책, 부산대학교 15,398책, 동아대학교 21,012책, 동의대학교 1,174책, 부산전문대학 110책, 부산신학교 10책, 경상대학교 10,534책, 육군대학 548책, 진주교육대학 312책, 해군사관학교 4,982책, 경상대학교 4,173책이며 公共圖書館의 경우는 구덕도서관 40책, 부전도서관 60책, 시민도서관 3,404책, 거창도서관 92책, 마산도서관 206책, 삼천포도서관 82책, 울산문화원 157책, 울산중부도서관 8책이다. 그리고 專門, 特殊圖書館의 경우는 부산상공회의소 2책, 해강아동관 2,000책, 경남교육연수원 30책, 국립수산진흥원 200책, 울산동강병원 30책, 해군 4,000책, 해인사 2,500책등이 각각 분산 보관하고 있다; 韓國圖書館協會, 「한국도서관통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2, pp.10-69.

야 한다. 고서의 원전은 각 지방에 보관되어 있을지라도 이용면으로는 지장없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라. 豫算의 確保

각 도서관에서 고전자료에 대한 예산의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수서방침을 보면, 연구 및 교재도서(외국, 국내), 교양도서, 참고도서, 서지자료, 비도서자료, 학생요망도서로만 되어 있고<sup>9)</sup> 고전자료의 수서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다. 고전자료 중에서 영인본의 구입은 연구 및 교재도서중 국내도서에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자료는 워낙 高價여서 도서관의 예산으로 많은 자료를 구입하기에는 어렵겠지만 收書方針의 항목 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 무심한 정책이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은 고전자료의 수집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고전자료실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든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러므로 고전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서방침에 고전자료의 구입에 대한 항목이 별도로 설정되어야 하며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고전자료 原典의 수집 뿐만 아니라 影印本, 複寫本등의 수집이 활성화될 것이다. 고전자료의 구입 예산은 그 도서관의 자료구입예산중에서 최소한 5%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

## IV. 古典資料의 分類

### 1. 分類政策

古典資料의 分類法은 劉歆의 七略에서 비롯하여 四部分類法, 四分改修法 등 많은 變化를 가져 왔는데 現代에 와서는 十進分類法을 비롯하여 독자적인 展開

9) 부산대학교도서관, 「도서관소식」 2(1990), p.17-18.

法이 만들어짐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여러가지 분류법 중에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들 분류법 중에서 古典資料의 分類는 크게 四部分類法이나 四分改修法을 적용하고 있는 도서관과 十進分類法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다.

四分法은 중국에서 나온 것이며 十進分類法은 서양에서 처음 나온 분류표로 각각 서로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sup>10)</sup> 분류법은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므로 분류법의 채택은 도서관의 정책면에서 마땅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전자료의 분류법이 처음부터 신중한 검토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古書의 分類政策은 소장된 고서의 내용과 도서관의 성격, 즉 보관하고 있는 자료실이 古書위주의 소장인가 아니면 新, 古書を 같이 소장하는가, 그 소장이 保存위주인가 아니면 利用위주인가, 또 그 성격이 東洋學의 專門圖書館인가 아니면 一般圖書館인가의 여하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古典資料의 保存을 위주로 하는 個人 또는 團體의 文庫와 圖書館 그리고 東洋學만의 專門圖書館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고서위주의 분류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奎章閣, 藏書閣, 國史館 각종 書院文庫 등에 있어서는 소장본이 주로 지난날에 수집된 전형적인 고서로 한정되어 있고, 도서관의 주된 기능이 이용자 위주라기 보다는 문화재의 보존에 더욱 치중하고 있거나 또는 그 대상이 극히 제한된 동양학 전공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학에 관한 주제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십진분류법을 적용시켜 정리할 필요는 없다. 전통적으로 東洋學 전공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四分法을 적용시켜 고서위주로 간편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에 유의할 점은 四分法에 대한 적절한 보완문제이다. 다른 분류법들을 참고하여 소장본의 성격과 그 많고 적음에 따라 類, 屬의 순서와 詳略을 알맞게 정하고 아울러 한국의 특이한 사정을 반영시켜 더하고 뺄을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利用위주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는 단일분류표에 의한 一般資料와 古典資料의 일원화 분류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것은 도서를 分類하는 궁극적인

10) 千惠鳳. 前掲書, pp.34-39, 134-135.

목적에 도서관 자료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고서라면 덮어놓고 신서와는 달리 분류법을 적용시켜 配架도 따로하고 목록도 따로 하려는 경향이 짙다. 물론 資料配架에 있어서는 일반자료도 그 중 대형인 것 또는 특수장정인 것등은 별치기호를 부여하여 별도로 배가하고 있듯이 고서에 있어서는 동장본인 것은 별도로 배가할 수 있지만, 분류까지 一般資料와 古典資料를 각각 다르게 할 이유는 없다. 분류법이 서로 다르다면 分類目錄까지도 따로 조직하여야 하고, 또 동일한 서명, 동일한 주제이면서도 古書와 新書의 분류기호가 서로 달라서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는데 적지 않은 혼잡과 불편을 느끼게 된다. 더우기 고서의 소장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신서를 분류할 수 있는 분류법이라면 그런대로 고서도 분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분류체계를 갖는 것은 삼가해야 할 문제이다.

이용위주로 운용하는 현대도서관이 단일 분류법에 의하여 新, 古書를 일원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정책을 뒷받침해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도서관들이 新, 古書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있다. 新, 古書를 裝幀別, 文字別로 나누어 정리하거나 절충적인 방법으로 정리할 때의 애로와 불합리성을 생각하면 굳이 현대서와 고서를 나누어 두개의 분류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단일분류 정책은 도서관 관리의 입장에서도 이점이 많다. 같은 분류체계에 의해서 동일한 주제의 목록이 함께 배열되었을 경우,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고 목록을 작성할 때 동의어 색인 나아가서는 전거카드의 작성에 있어서 까지도 이중으로 인력을 낭비시킬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신서와 고서를 일원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東洋學과 現代學問의 양자에 걸쳐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춘 분류법의 완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이상적으로는 新, 古, 外國書의 통일적인 체계를 위한 분류법은 四分이나 十進이라는 제한을 벗어나서 객관적인 학문의 체계를 추구하는 展開式 分類

體系로 조직되어야 한다.<sup>11)</sup> 즉 심진분류표의 하나인 KDC, DDC에는 고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것은 東, 西洋學의 모든 지식이 十進이라는 제한내에서 무리하게 전개된데서 기인하는 불가피한 결함인 것이다. 지금도 벌써 綱目과 細目에서 상하관계의 개념이 흐려졌고 구분의 균형을 잃은 곳이 있다. 또 분류기호가 길어진 것도 있으며 특히 동양학 관계의 주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결점은 학문의 발전과 더불어 분류법이 성장하면 성장 할수록 정비례하여 더욱 커지는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四部分類法이나 十進分類法이어야 한다는 제한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학문의 체계를 충분히 이용하는 전개식 분류체계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객관적인 내용의 도서를 주관적인 한정기호로 구분하는 분류방법을 지양하고 동.서양학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걸쳐 체계적이고 발전성있게 전개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분류법을 마련할 때가 도래한 것 같이 여겨진다. 그때가 바로 대도서관도 단일분류법에 의하여 동.서양서의 모든 분류를 명실상부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 2. 分類의 現實

우리나라의 圖書館 특히 大學圖書館의 경우는 장서수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古書를 대부분 소장하고 있다. 고전자료의 장서수에 따라 一般資料와 統合하거나 별도로 資料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국립대학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古典資料를 一般資料의 분류표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고전자료 분류표 사용의 현실을 알아본다. 이 현황은 고전자료의 분류표는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 여러가지 이유로 등록하고 있지 못하여 자료수가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도서관도 모두 기록하였다.

11) 千惠鳳. 前掲書, pp.139.

< 國立大學 圖書館 資料分類表 現況 >

大學別	東 洋 書		西 洋 書		古 書		備 考
	藏書數	分類表	藏書數	分類表	藏書數	分類表	
江原大	250,479	KDC수정	85,025	KDC수정	-	KDC수정	*5部分類法은 4部分類法인 經史子集部에 總部를 더하고 十進分類法을 적용함.
慶北大	335,566	DDC15	228,591	DDC15	14,992	DDC15	
慶尙大	123,711	KDC3	66,332	KDC3	10,534	4分改修法	
群山大	54,148	KDC3	25,498	KDC3	-	KDC3	
木浦大	77,432	KDC3	31,414	KDC3	-	KDC	
釜山大	437,792	KDC2,3	143,408	DDC20	15,398	4分改修法	
釜山水產大	78,615	KDC2,3	33,009	DDC17,19	-	KDC2,3	
서울大	723,959	DDC18	584,888	DDC18	202,955	DDC18	
順天大	81,841	KDC3	18,618	KDC3	-	KDC3	
安東大	75,095	KDC3	27,018	KDC3	3,432	KDC3	
全南大	339,974	DDC16,18	137,400	DDC16,18	23,546	4部分類法	
全北大	204,653	DDC16	147,029	DDC16	11,050	DDC16	
濟州大	152,491	KDC3	63,186	KDC3	-	KDC3	
昌原大	64,220	KDC3	29,196	DDC19	-	KDC3	
忠南大	320,673	DDC18	121,479	DDC18	17,673	5部分類法	
忠北大	189,825	KDC3	92,255	KDC3	2,633	KDC3	
韓國敎員大	122,207	DDC19	24,844	DDC19	-	DDC19	
金烏工科大	45,767	KDC	11,628	DDC19	-	KDC	
三陟産業大	24,487	KDC	2,920	KDC	10	KDC	
大邱敎大	72,838	DDC16	7,958	DDC16	-	DDC16	

\* 이 표의 자료현황은 「한국도서관통계 1992」와 「國立大學圖書館報 第10輯」에서 발췌한 것임

위의 자료분류표의 현황들을 분석하면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大學圖書館에서 東洋書, 西洋書, 古典資料의 분류법이 모두 같은 경우로 가장 이상적이다. 즉, 강원대, 경북대, 군산대, 목포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북대, 제주대, 충북대, 교원대, 삼척공업대, 대구교대등 20개 도서관 중에서 13개 도서관이다. 이 중에서 고전자료를 1만책이상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서울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뿐이고 나머지 대학도서관들은 많아야 2,3천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대도서관과 경북대도서관은 미국에서 조직된 듀이十進分類表(DDC)를 사용하고 있어 韓國十進分類表(KDC)보다도 더욱 동양학에 관한 주제가 누락되어 있거나 그 전개가 불충분하므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은 강원대학교와 같이 분류표를 수정해 가면서 사용하면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장서는 보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분류의 一元化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분류표를 사용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할 필요는 없다.

둘째는 東洋書와 西洋書는 分類表가 같으나 古典資料만 독립적인 분류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즉 이들 도서관은 고전자료가 1만책 이상인 대규모의 도서관으로 경상대, 전남대, 충남대 등이 이에 속한다. 경상대와 전남대는 經, 史, 子, 集에 의한 四分改修法을 사용하고 있으며, 충남대학교 도서관의 경우는 전통적인 四部分類法과 十進分類法의 장단점을 비교 감안한 방법으로 經, 史, 子, 集부에 總部를 신설하여 五部分類表라는 독자적인 분류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12) 그러나 이런 분류표는 자료조직상 좋은 점은 있으나 고전자료도 이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四分法도 아니고 十進法도 아닌 분류법을 이용자로 하여금 새롭게 이해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다. 동양서와 서양서에 사용되는 분류표는 주제의 전개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류표를 사용하면 서도 고전자료만 독립적인 분류표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셋째, 東洋書(KDC)와 古典資料(KDC)의 分類表는 같지만 西洋書(DDC)가 다

12) 洪九杓,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 方案,” 『國立大學圖書館報』 9輯,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91, pp.98-101.



른 경우이다. 즉 부산수산대, 창원대, 금오공대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도서관은 모두 고전자료의 장서수가 통계상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古典資料가 아예 없는데 앞으로 수집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분류법만 선정해 놓았거나 고전자료를 정리할 만한 전문사서가 없고 장서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아마 후자의 경우라 생각된다. 이들 도서관은 모두 십진분류법을 사용하는데 동양서와 고전자료는 KDC를, 서양서는 DDC를 사용하여 학문의 내용이나 자료분류표의 단일화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려고 노력한 도서관들이라 볼 수 있다.

넷째, 東洋書(KDC), 西洋書(DDC), 古典資料(四分改修法)의 分類法이 각각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국립대학도서관 중에서 오직 부산대학교 도서관만이 이에 속한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이밖에도 1975년 이전의 동양서는 KDC(P)에 의한 분류표를 사용하였는데 아직 일부분은 소급변환을 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 도서관에 총 4개의 분류표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사서가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KDC(P)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3개의 분류표에 대하여 숙달해야 만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言語學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자료를 찾고자 할 때 그 자료가 國語의 古語인 경우는 四分改修法을, 現代語로 된 문헌을 찾을 때는 KDC를, 외국문헌을 찾을 때는 DDC를 이해하여야 만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료의 수가 작은 古典資料부터 분류표의 전환이 필요하다.

### 3. 分類法의 改善

도서관의 분류표는 一元化되어야 한다. 그래서 장서가 중,소규모인 대학도서관들은 대부분이 대규모의 도서관들보다 늦게 출발하였기 때문에 분류표의 일원화란 측면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國立大學 圖書館 資料分類表 現況〉 참조) 그러나 장서의 규모가 대규모인 대학도서관의 경우 분류표를 전환한다는 것은 시간과 인력, 예산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므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전환을 한다고 하

더라도 비용 대 효과의 면에서 반드시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

고전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많아 2만책 안팎의 장서를 구성하고 있어 전문사서를 배치한다면 분류표의 전환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용의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일반도서와 혼합配架되어 있는 영인본 등의 고전자료들은 이용이 잘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고전자료실들은 대부분이 전통적인 東裝本의 古書만을 소장하고 閉架制<sup>13)</sup>로 운영하는 고전자료실들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형편이다.<sup>14)</sup> 그 이유중 하나는 대규모의 대학도서관들이 똑 같은 고전자료인 전통적인 東裝本 형태의 古書와 후세에 간행된 洋裝本인 影印本들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東裝本の 古書는 四分法으로 하고 洋裝本の 影印本 등은 十進法으로 분류되어 있어 하나의 고전자료실에 두개의 분류표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내용이 똑 같은 고서와 영인본이라 할지라도 분류기호가 달라지게 된다. 분류표가 다른 자료들을 같은 곳에 모아서 자료실을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고서와 영인본을 같이 배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동양자료와 고전자료의 분류표를 통일하여 東裝本の 古書와 洋裝本の 형태로 再刊 또는 影印된 자료들은 고전자료실에 모으고 開架式으로 운영한다면 현재의 이용율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13) 洪九杓. 前掲論文, p.93.

14) 1992년 9월부터 1993년 5월까지 9개월 동안 부산대학교 고전자료실의 이용자는 26명이며 이용횟수는 총 49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루 이용자 수는 약 0.11명에 불과하다. 부산대학교 봉사대상인원을 약 2만명으로 잡을 때 고전자료는 전혀 이용이 안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산대학교 고전자료실은 전통적인 東裝本인 古書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 釜山大學校古典資料室, 「古典資料閱覽記錄簿」未刊行.

## V. 古典資料의 管理와 利用

### 1. 效率的 管理

圖書館이란 자료의 蒐集, 整理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管理이다. 특히 고전자료의 경우는 一般資料와는 달리 新刊圖書를 바로 도서관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오래된 자료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원형이 훼손되어 들어온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간행되지 않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가. 配架方法

東裝本인 古書와 洋裝本인 影印本은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서가에 배열할 수 있다. 첫째는 東裝本の 古書와 洋裝本の 影印本을 함께 배열하는 混合配架이다. 이 방법은 동일저작의 모든 자료들이 한곳에 모여 이용자가 검색하기에 용이하다라는 잇점이 있다. 그러나 東裝本の 古書를 洋裝本인 影印本과 함께 세워 놓기 위해서는 帙匣장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의 비용이 드는 것이 문제이며, 또 동장본의 고서는 영인본보다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保存方法에 있어서도 더욱 유의를 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도서관에서는 적합한 방법이 못된다. 이러한 배가방법은 국내에는 아직 없으나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하버드엔칭도서관에서 취하고 있다.<sup>15)</sup>

둘째는 東裝本인 古書와 洋裝本인 影印本の 分離配架이다. 이러한 형태별 구분은 거의 모든 도서관들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도서관들은 아예 자료실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적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즉 동장본의 고서는 고전자료실에 별치하여 폐가제로 운영하고 있고, 양장본인 영인본은 동양자료실에 일반자료와 혼합배가하여 개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료의 형태적인 차이가 도서관이 고서와 영인본들을 같은 자료실에 모으지 못하는 또 하

15) 李載喆. 前揭論文, p.24.

나의 이유이다. 양장본인 영인본도 고전자료의 범주에 속하므로 동양자료실의 서가에 배열하면 안되고 고전자료실의 서가에 동장본과 달리 배열하여야 한다. 동장본의 고서는 더이상 간행되지 않는 자료로써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므로 고전자료실안에서 별실을 만들어 훼손을 막기위해 閉架制 또는 半閉架制로 운영되어야 한다.

#### 나. 保存方法

오늘날 가장 많은 記錄資料로 사용되고 있는 종이는 값싸고 다루기 편리하나 그 永續的인 保存問題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고전자료의 보존 문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점진적인 資料 腐蝕의 위기가 도래함으로서 그 관심이 높아졌다. 圖書館에 있는 古典資料의 腐蝕은 과거에도 있어 왔으며, 현재에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속도를 다소 늦춘다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부식으로 인하여 더이상 열람 시킬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료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도서관에서 자료의 부식은 보존조건에 따라 상당히 다른 비율로 腐蝕되는 현상을 볼 때 자료보존을 위한 環境條件問題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 보여진다. 그러므로 자료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보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는 光線의 문제이다. 자연광선과 인공광선의 자외선에 종이와 오래동안 노출되면 부스러지기 쉽고 내구력이 약해진다. 日光과 螢光性 빛은 종이를 심하게 파괴하는 반면에 백열등은 파괴율이 다른 빛에 비하여 비교적 적다.<sup>16)</sup> 빛은 곰팡이의 성장을 막고 그것들이 숨어 있는 장소에서 해충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료실에 백열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둘째는 溫度와 濕度이다. 심한 乾燥와 過濕은 즉 종이와 부스러지게 쉽게되거나 누렇게 변색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

16) 權起遠, “圖書館資料 保存에 關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1987, pp.18-19.

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의 이상적인 온도는 섭씨 16~18도가 적당하며, 相對濕度는 40~65%가 적당하므로<sup>17)</sup> 자료실에는 恒溫恒濕機를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는 生物的 要素이다. 이것은 곰팡이, 쥐 및 각종 害蟲을 의미한다. 過溫多濕할 경우에 곰팡이나 微生物들이 활동하기에 最良의 環境이 된다. 溫度와 濕度의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微生物에 대해 白雲夏님은 약 100여종을 제시하였다.<sup>18)</sup> 또한 미생물이 발생되어 濕氣를 흡수함으로 더욱 빠르게 번식하게 되는 이러한 環境은 害蟲의 번식조건이며 미생물과 해충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미생물과 해충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독함으로 그 이상의 增殖을 정지시켜야 한다. 한편 자료실의 먼지는 해충 발생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 다. 複寫本의 製作

고전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대부분이 稀貴本이나 貴重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료들은 대개 훼손문제 때문에 공개하기를 회피하여 자료의 이용상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자료들은 複寫本을 제작하여 原本은 별도로 관리하고 複寫本으로 이용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이용자가 불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귀중본이나 희귀본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또한 별도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되어 이용과 보존의 두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2. 利用의 極大化

### 가. 藏書目錄의 發刊

고전자료의 장서목록은 자료의 소장을 알려주는 것으로 도서관 相互貸借의 전제가 될 뿐만아니라 이용자에게 자료검색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藏書目錄은

17) 白雲夏. "書籍害蟲에 關한 調査研究," 「奎章閣」5輯,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p.160.

18) 白雲夏. 前揭論文, p.160.

서울大學校 圖書館<sup>19)</sup> 등 대규모의 도서관에서 이미 발간하고 있으나 아직 카드 목록만을 사용하고 책자형으로는 발간하지 못한 도서관도 상당수 있다. 이미 발간된 각 도서관의 藏書目錄들은 研究者들에게 크나큰 공헌을 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책자형 장서목록의 단점은 한꺼번에 여러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다는 것과 계속 증가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간행해야 되는데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전자료의 장서목록은 도서관에 여러권 비치시키면 되고, 계속적인 자료의 증가라는 측면에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즉, 影印本은 계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겠지만 傳統的인 古書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증가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도서관은 현재 自館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고서만이라도 목록을 작성하여 줌으로 이용자의 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영인본은 어느 도서관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지만 고서는 그 도서관 외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藏書目錄의 記述方法은 도서관 자료의 전산화에 대비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고서용-<sup>20)</sup>에 맞추어 목록의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며 記述內容도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각 도서관에서 장서목록을 발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목록이 완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목록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目錄의 書誌事項을 記述하고 나서는 解題도 덧붙여야지만 이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 더욱 호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도서관의 藏書目錄 뿐만 아니라 古書綜合目錄도 발간이 되어야 한다. 장서목록은 자관의 장서만 목록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자료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다. 古書들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자관에서 해결하기에는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한

19)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1-2,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20)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연구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고서용기술규칙-, -고서용포맷-)가 주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곳에서 모든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古書綜合目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에 國會圖書館에서 「韓國古書綜合目錄」<sup>21)</sup>을 발간하였는데 누락된 자료가 많고 기술내용도 간략하게 되어 있어 이용에 애로점이 많다. 1988년에 全南大學校 圖書館에서 國立大學校에 소장된 고서를 중심으로 「古書綜合目錄」을 간행하려고 각 大學도서관 고서목록을 조사한 적이 있지만 아직 발간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文化財管理局에서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sup>22)</sup>을 연차적으로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 나. 解題作業의 推進

고전자료는 대부분이 한글과 다른 文字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一般利用자가 쉽게 접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전자료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료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解題作業이 필요하다. 이러한 解題書는 고전자료의 이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2次 情報源으로써 가장 중요한 도구인 동시에 索引이나 抄錄보다도 더 한층 高次元的인 書誌類이며 또한 圖書館 奉仕業務 중에서도 가장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현재 서울大學校 圖書館이나 國立中央圖書館 그리고 全北大學校圖書館<sup>23)</sup>등에서 고전자료의 해제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이 작업에 손도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解題作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들의 대부분이 司書들의 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개입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반도서관들은 예산적인 면에서나 인력적인 면에서 전문가들을 통하여 해제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해서 解題作業을 하

21) 국회도서관.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국회도서관, 1986.

22) 註 6) 참조.

23)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1-7,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78-1984.

「奎章閣韓國本圖書目錄索引」, 서울, 서울大圖書館, 1987.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 1-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2-1973.

「선본해제」, 1-4,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0-1973.

全北大學校圖書館, 「古漢籍解題」, 1 -史部,集部-, 전주, 全北大學校圖書館, 1990

지 않고 마냥 소극적인 자세로 이용자들을 받아들인다면 자료의 활용적 측면에서 계속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에 의한 구체적인 해제가 아니라 사서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을 통하여 간략하게 기록하여 高質의 봉사를 함으로써 이용의 극대화라는 면에 호응하여야 한다.

圖書館에서 작성할 수 있는 解題의 內容과 方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目錄의 書誌記述事項들을 모두 그대로 작성한다. 2) 目錄의 작성시 정확하지 못한 사항들 즉, 板本이나 刊行年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들도 기재한다. 3) 著者나 編者의 소개는 年報나 人物大事典 등을 여러자료들을 참고하여 기재한다. 4) 고전자료의 內容과 目次를 기재한다. 4) 序文, 跋文과 凡例를 통하여 알 수 있는 著作의 成立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한다. 5) 既存에 작성되어 있는 고전자료의 해제들을 참고하여 채록한다.

이러한 解題作業의 기본 전제는 專門司書의 확보이다. 전문사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漢文의 解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解題도 불가능하다.

#### 다. 專門司書의 確保

고전자료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전자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專門司書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고전자료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운영하는 부서가 되어버려 이곳에 배치하는 직원도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나 다른 업무와 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24)</sup> 전담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사서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는 자연히 적고 아울러 이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없는 무관심 속의 자료실로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24) 국립대학도서관의 고전자료 담당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18개의 대학도서관 중에서 고전자료 전담사서가 있는 곳은 6개, 다른 업무와 같이 하는 곳 8개, 기능직이 담당하는 곳은 5개의 도서관이다; 洪九杓. 前揭論文, p.93 참조.



고전자료를 전담하는 專門司書는 漢文에 대한 기본지식과 書誌學에 대한 전문 지식이 겸비되어야 한다. 전문사서는 한문에 대한 해독 능력을 갖추고, 최소한 文獻情報學科 大學院 碩士課程을 수료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헌정보학과의 학부 교과과정에서는 서지학 관련분야가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sup>25)</sup>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학습수준도 고전자료실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전자료의 목록을 하기 위해서는 形態書誌學에 대한 전문지식을 숙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학부 교과과정에는 어느 대학교도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않다.

이러한 전문사서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 현 시대의 인적 구성들이 漢文教育에서 제외된 한글세대에 속하므로 漢文에 능통한 사람이 많지 않으며 아울러 書誌學에 대한 知識을 겸비한 사람은 더욱 찾기 힘들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의 면에서나 사회적 인식도가 아직도 낮은 사서로 근무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고전자료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문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서중에서 大學의 漢文學에 관련된 學科에 委託教育을 시키고 아울러 문헌정보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서가 고전자료 관련분야의 지식함양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면서 책임성 있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책에 획기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 VI. 結 論

이상에서 古典資料室 運營의 活性化라는 측면에서 古典資料의 概念에서 부터 蒐集, 整理, 管理, 活用に이르기까지 問題點을 밝히고 改善點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점들을 종합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

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도서관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미간행, pp.37-57.

고자 한다.

첫째, 古典資料에 대한 認識의 轉換이다. 古典資料는 먼지만 쌓여 있고 관리하기 힘든 귀찮은 자료라는 인식에서 우리 선조들의 고귀한 학술과 사상을 담은 귀중한 자료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古典資料는 귀중한 자료가기 때문에 保存만 잘 하면 된다는 保存의 개념에서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시킨다는 利用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古典資料政策의 制度化이다. 古典資料를 蒐集, 整理, 管理, 活用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과 방침들을 法的으로 制度化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고전자료의 概念, 뿐만 아니라 蒐集에서부터 시작하여 利用에 이르기까지 문서로서 성문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古典資料에 대한 專門司書의 確保이다. 고전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전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져 이용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전문사서가 필요한 것이다. 전문사서는 漢文에 대한 基本知識과 書誌學에 대한 專門知識 겸비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정도는 수료하여야 한다.

넷째, 古典資料室에 대한 財政的 支援이다. 현재 일반도서관에서 고전자료의 수집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전자료 이용의 활성화는 대단히 어렵다. 최소한 도서관 예산의 5% 정도는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古典資料의 電算化, 書誌道具의 開發 등 고전자료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루어진다면 고전자료의 이용자는 점차 증가되어 고전자료실이 활성화될 것이며 아울러 고전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재정적 지원도 점차 늘어 날 것이다. 그리고 고전자료 전문사서를 배치함으로써 사서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權起遠. “圖書館資料 保存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國立大學圖書館報」10輯,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92.
- 국립중앙도서관. 「고문서해제」1-2,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2-1973.
- \_\_\_\_\_ . 「선본해제」1-4,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0-1973.
- 국회도서관.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국회도서관, 1986.
- 金致雨. “古書의 傳統의 整理方法에 關한 問題와 對策,” 「論文集」14輯, 釜山, 釜山女子大學, 1983.
- 文化財管理局.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1輯 -大邱直轄市,慶尙北道-, 서울, 文化財管理局, 1986.
- \_\_\_\_\_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2輯 -忠清南道-, 서울, 1988.
- \_\_\_\_\_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3輯 -江原道-, 서울, 1989.
- \_\_\_\_\_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4輯 -全羅北道-, 서울, 1990.
- \_\_\_\_\_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5輯 -安東市,郡(上)-, 서울, 1991.
- \_\_\_\_\_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5輯 -安東市,郡(下)-, 서울, 1991.
- \_\_\_\_\_ . 「韓國典籍綜合調查目錄」6輯 -光州直轄市,全羅南道-, 서울, 1992.
- 白雲夏. “書籍害蟲에 關한 研究,” 「奎章閣」5,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1-7,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78-1984.
- \_\_\_\_\_ .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1-2,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81.
- 申學均. “國立中央圖書館에 있어서의 古書蒐集과 管理,” 「國立中央圖書館 開館 60周年 紀念論文集」, 서울, 國立中央圖書館, 1984.
- 梁大淵. “古典의 定義와 그 內容의 分類,” 「민족문화」, 창간호, 서울, 民族文化

推進會, 1975.

尹炳泰. 「韓國古書整理法研究」, 서울, 利久出版社, 1983.

李載喆. “韓國에서의 古典籍分類考,” 「민족문화」 창간호,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75.

全北大學校圖書館, 「古漢籍解題」 1 -史部,集部-, 전주, 全北大學校圖書館, 1990

조동일. 「국문학연구의 방향과 과제」, 서울, 새문社, 1985.

趙潤相. “古書籍의 科學的 保存,” 「奎章閣」 2, 서울, 서울大學校圖書館, 1978.

諸洪圭. “古書의 蒐集과 個人文庫,” 「도서관」 28권8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3. 8. 9.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上)」,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韓國圖書館協會. 「韓國圖書館統計」,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2.

洪九杓. “大學圖書館 古書室 運營의 活性化 方案,” 서울, 國立大學圖書館協議會, 1991.

##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Classics Department Management

Ryu, Jun Jeong

### <Abstract>

Some problems with the definition, collectio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use of classics and some solutions for these aspects are presented in this study,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classics department management.

While trying to put these solutions together and to make some basic remedies, we lead to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understanding on classics should be changed. The ideas that classics are very valuable, so they are only for preservation should be turned to that of making them actively used by the users. And policies as a result of positive interest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ly, a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statement should be maintained. All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on collection, organization, management and use of classics have to be expressed clearly in this document, in order for the positive and consistent activation of classics department.

Thirdly, professional librarians who deal with classics are needed. In order for providing classics service efficiently, first of all, professional librarians who have professional knowledges on classics and are able to provide satisfactory services to their users are needed.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classics department should be improved. At present, there are few financial supports for the classics department in the common libraries. In this situation, it is very hard to activate the use of classics.